

# 문화 과학

문화이론전문지

Newsletter

n. 05 | 2014년 12월호

## 특집: 대안사회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위기’를 논하는 말들이 넘쳐난다. 언제나 경제의 위기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인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작태는 논외로 치자. 정부의 설레발이 통치를 위해 위기를 전유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사방의 말들 속에 담긴 ‘위기’는 실제적이며 실존적이다.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로 표상되는, 도처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순간순간 되물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위기라는 개념이 그저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 일부임을 자각하도록 강제하는 중이다. 이제 한국에 사는 이들은 수학여행을 떠나면서도, 콘서트를 구경하면서도 생명을 걸어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 대신 재단의 독재를 염려하고 교수의 성추행을 경계해야 하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도 비선조직을 떠올리고 ‘사라진 7시간’



을 궁급해 할 수밖에 없고, 담배를 사면서도 부당한 세금에 분노하게 되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알아야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런 놀라운 현실의 무게에 모두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개인은 생존경쟁의 틈바

구니 속에서 살아남느라 매순간 위기를 느끼되 그 의미를 성찰하지는 못하고, 이미 해체 중에 있는 사회는 그러한 개인의 불안과 공포를 막아줄 연대의 그물을 촘촘히 짤 여력이 없으며, 국가는 ‘초’ 국가적 경제 권력의 전 지구적 헤게모니 앞에서 이들의 충실한 로운 미래를 상상할 최적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야기 더보기)

시간 안내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123편 잡지 창간사로 읽는 한국 현대 문화사

천정환 지음  
마음산책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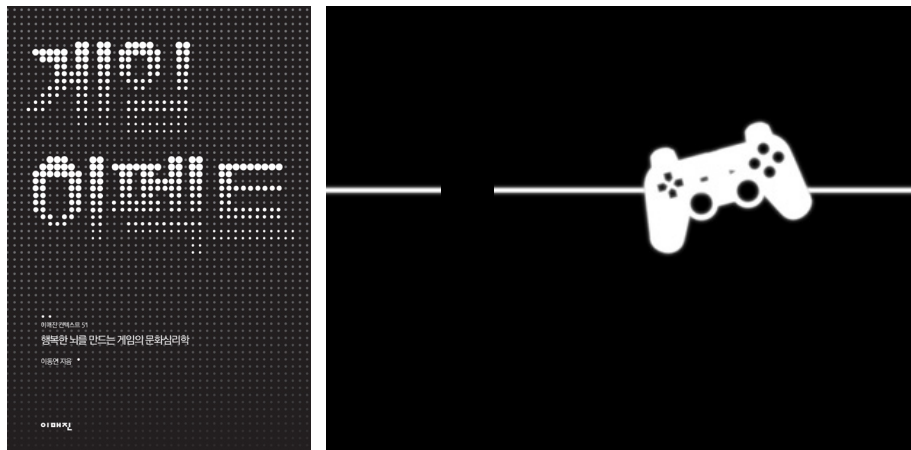
잡지는 신문에 비해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도 만들 수 있어 발행하기 쉽다. 발행인의 사정에 따라 주간, 월간, 계간, 반년간, 연간 등 발간 주기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창간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의 요구와 분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객관성을 강조하는 신문에 비해 만드는 이들의 주관은 강력하게 투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점에서 잡지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잡지라는 매체에 새겨진 각 시대의 지적·문화적 풍경을 들여다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더보기)



# 행복한 뇌를 만드는 게임의 문화심리학 : 게임 이펙트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음 | 이매진컨스트 51

집, 버스, 지하철, 학교, 교회, 절, 비행기, 화장실. 이 모든 곳에서 남녀 노소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바로 게임이다. 게임은 이제 특별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됐다.



"엄마 주머니를 뒤져 50원짜리 동전을 들고 오락실로 달려가던 아이는 어느덧 스마트폰으로 하트를 날리며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만 고민하는 부모가 됐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게임 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그런 게임이 지금 '셋다운'되고 있다. 알코올, 도박, 약물에 더해 '4대 중독'으로 분류돼 '창조경제'를 위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

《게임 이펙트》는 강제적 게임 셋다운제를 도입한 뒤 논란이 된 게임 규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게임을 둘러싼 한국 사

회의 논쟁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게임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모두 있다. 문제는 공부 대 게임, 산업 대 문화, 경제 대 교육 등 게임을 둘러싼 여러 이분법 속에서 부정적 요소만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 게임 규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게임의 사회 심리, 게임과 뇌과학에 관한 다른 견해, 게임이 창의적 교육과 문화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려는 어느 문화 연구자의 고군분투기다.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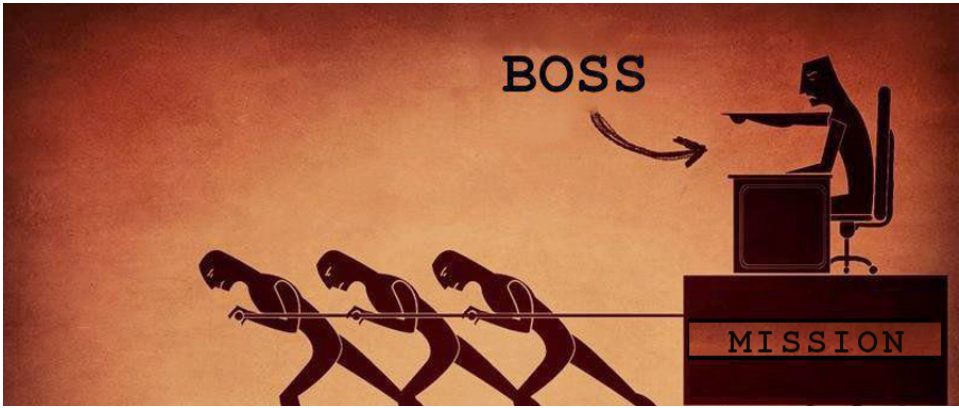
## 문화과학 월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정기구독제를 월 후원회원으로 전환합니다.

『문화/과학』은 71호부터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편집위원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편집체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독자들의 외연의 폭을 넓히려는 대중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계간 『문화/과학』은 정기구독제 도에서 월 후원체도로 전환하여 출판 제정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독자 서비스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문화/과학』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문화이론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칼럼

‘이자스민’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대상

By 최철웅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박사수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자스민의 미친 법 발의를 막자”는 선동이 횡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는 다문화가정의 복지 및 아동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자스민은 그 자체 우리사회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집중되고 각축을 벌이는 민감한 ‘정치적 장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려 할 때마다 그녀가 ‘원흉’으로 지목되곤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제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발의에 동참한 다른 9명의 의원도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그러나 이자스민의 의원이 발의했다는...(더보기)

‘갑질’의 저편

올해의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코 ‘갑질’ 일 것이다. 한 주 동안 미디어를 도배하다시피 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소위 ‘땅콩리턴’ 사건은 ‘갑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By 문강형준(문화평론가)

흔히 ‘갑질’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로 재현되지만 ‘갑질’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갑이며 을이다. 갑은 어느 순간 을이 되고, 을은 어느 순간 갑이 된다. 이처럼 갑과 을은 변함없는 본질이 아니라 내가 자리해 있는 위치의 상대성, 곧 ‘관계’의 문제다. 위치가 바뀌면 갑을관계는 순간적으로 전복된다. <코미디빅리그>의 ‘갑과 을’이라는 코너는 이 위치의 상대성을 보여주며 웃음을 유발한다.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소설 <피아노 치는 여자>에서 엄격한 피아노 선생 에리카는 학생들의 실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갑이지만, 제자인 클레머의 유혹에 굴복해 ‘선생’에서 ‘여자’의 위치로 가는 순간 을이 된다. 이 둘 사이의 권

력관계가 어떤 식의 폭력을 동반하는지를 보라. 일등석의 조현아는 갑이었지만 포토라인 앞의 조현아는 을이고, 일등석의 사무장은 을이었지만 뉴스 프로그램 속의 사무장은 갑이다. 한바탕 소동 후, 회사에 복귀할 조현아와 사무장은 다시 기존의 갑을관계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인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민감한 것, 어떻게든 그 위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떻게든 서울 쪽으로, 재벌 쪽으로, 권력 쪽으로 위치할 때, 내가 갑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주주의는 이 갑을관계의 위치성을 영구적으로 전복하는 것, 없애는 것이다. 민중이 왕의 목을 치고, 대중이 ...(더보기)

『문화/과학』과 자유인문캠프 공동기획 문화연구 연속특강

한국사회를 읽는 문화코드: 재난자본주의, 대안적 상상, 문화적 실천

-이 강좌는 『문화/과학』이 최근 다루어온 문화연구의 주제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를 읽는 다양한 문화 코드들을 대중들과 공유하려는 것이다. 4·16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의 특성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 상상과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문화적 실천까지, 문화코드들을 통해 한국 사회를 파악하려는 이번 강좌는 문화현실을 둘러싼 이론과 실천을 함께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세히 보기(<http://freecamp.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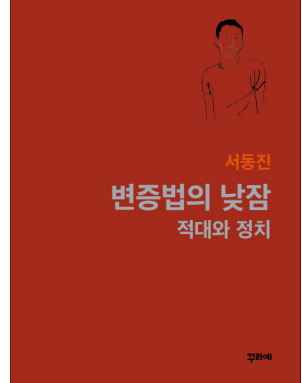
시간 안내

그는 '모순은 희망'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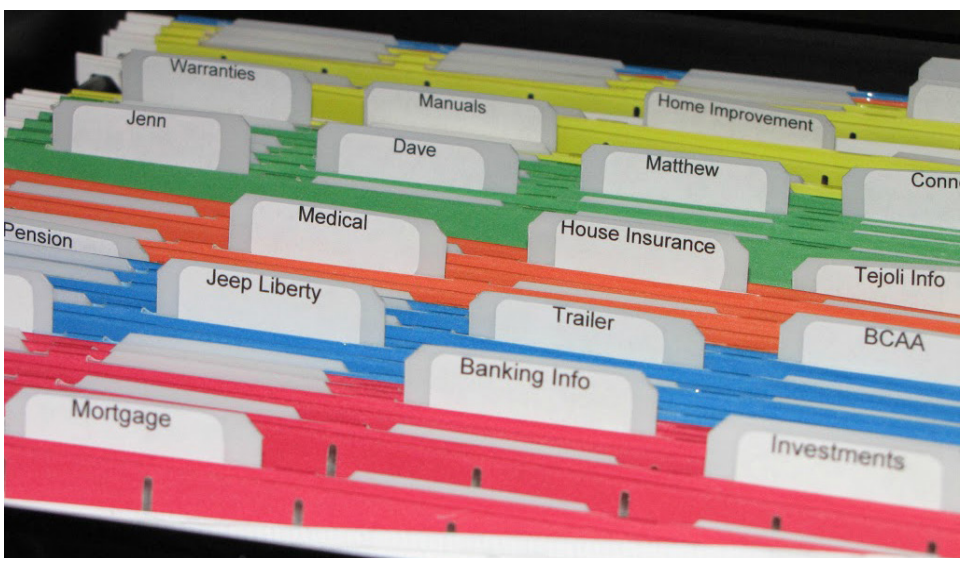
『변증법의 낮잠: 적대와 정치』

서동진 지음  
꾸리에 펴냄

<자유 의지, 자기개발의 의지>라는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강박적으로 자기개발에 매달리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규명해



냈던 사회학자 서동진은 이번에는 '정치의 죽음'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과거 사회변혁의 주체였던 인민이 어떻게 자기이해에 충실한 시민들로 개별화되었으며 민주주의란 것 또한 부정(否定)을 부정하는 체제유지의 알리바이로 전략하였는지를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해명되어보지 못한 경제와 ... (더보기)



연구자료

- 각 제목을 클릭하면 연구자료집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연구 17: 예술분야 연구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예술대학을 중심으로>

예술에 대한 '생태계' 관점이 확산되고, '창작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도 지적됨. 특히나 여러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술대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술대학의 위기가 결국에는 예술생태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음 ... (더보기)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텔레비전·위성채널·케이블 뿐 아니라, SNS에 기반 한 소셜미디어의 증가로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공유하는 '생비자'(prosumer)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상황 ... (더보기)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국회공청회 자료집>

현행 콘텐츠 유통시스템의 구조는 유통 상의 불공정 행위를 야기함. 콘텐츠 유통에서 장르를 불문하고 창작자와 서비스업자 간의 수익분배율 문제와, 창작자와 유통 사업자의 협상력 차이에서 야기된 유통 관행상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됨. 1. 창작보다 자본이 우선하는 콘텐츠 수익구조 ... (더보기)

문화연대의 행사: 영화 상영회 [보러가기 \(클릭\)](#)

<누구에게나 찬란한>(임유철 감독) 영화 상영회  
 \*일시: 12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입장료: 회비 만원(티켓 1 + 책1권)  
 \*참가 신청: cinei33@dolbegae.co.kr 로(성함/연락처/참석인원수/원하시는책제목 기재)  
 \*대학로 <이음객방 >,망원동 <책방 만일>, 은평구< 불광문고>, 마포구 <한강문고>에서 원하시는 들배게 책을 구매하시고 신청하셔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아듀 '14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 [sewolho416.org](http://sewolho416.org) [보러가기 \(클릭\)](#)

## 70일간의 배낭 여행기-2



By 김성일(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넌 놀러가서 좋겠다!**" 이번 여름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부러움과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애정 어린 관심의 표현이라 미소로 응답했지만, 마냥 고마운 말로 들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모든 사람들은 여행을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여행만큼 최고의 공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넌 여행으로 공부해서 좋겠다"는 말로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여행 사진과 글 더보기)

## 동정

### ◆이동연

- 11월 21일 <게임 이펙트: 뇌를 행복하게 하는 게임의 문화심리학>(이매진) 출간
- 11월 26일 포항공대에서 <케이팝의 미미크리와 문화자본의 논리> 초청강연
- 11월 27일 서울시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문화재단 주최 <예술과 노동 국제심포지엄> 좌장으로 참석
- 12월 4일~8일: 아시아전자상가 비교연구 차 홍콩/중국 심천 출장
- 12월 12일: 제2회 세운포럼 <우리가 기억하는 세운상가, 우리가 꿈꾸는 세운상가> 좌장으로 참석
- 12월 13일: 인문학협동조합 주최 <세월호 이후 우리는>(장소 푸른역사 아카데미) 토론회 발표

## 제10회 북클럽 후기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10회 문화과학 북클럽에서는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 생산양식과 주체양식의 변증법』의 저자인 심광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성일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원 편집위원과 이동연 편집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맑스 사상의 현대적·문화적 재해석과 인지과학의 결합을 통해 자기변혁과 세계변혁을 일치시키는 전략과 실천,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한 심광현 선생님의 이론적 시도에 대해 최원 편집위원과 이동연 편집인의 날카로운 논평과 질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토론 내용은 『문화/과학』 80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과학』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문위원/ 강내희 김세균 손호철 심광현 이득재 임춘성

편집위원/ 강정석 권경우 권명아 김성일 김영선 김정한 노명우 문강형준 박소현 박자영 서동진 서영표 오창은 이광석 이기형

이기훈 이명원 이윤중 이지영 임동근 정원욱 정정훈 조동원 조선령 조형근 주은우 전정환 최영화 최원 최철웅

편집인/ 이동연

발행인/ 손자희

편집/ 연구모임 아프폼(디자인: 그래픽크레이)

뉴스레터/ 정원욱 (디자인: 이안홍빈)